

전북도,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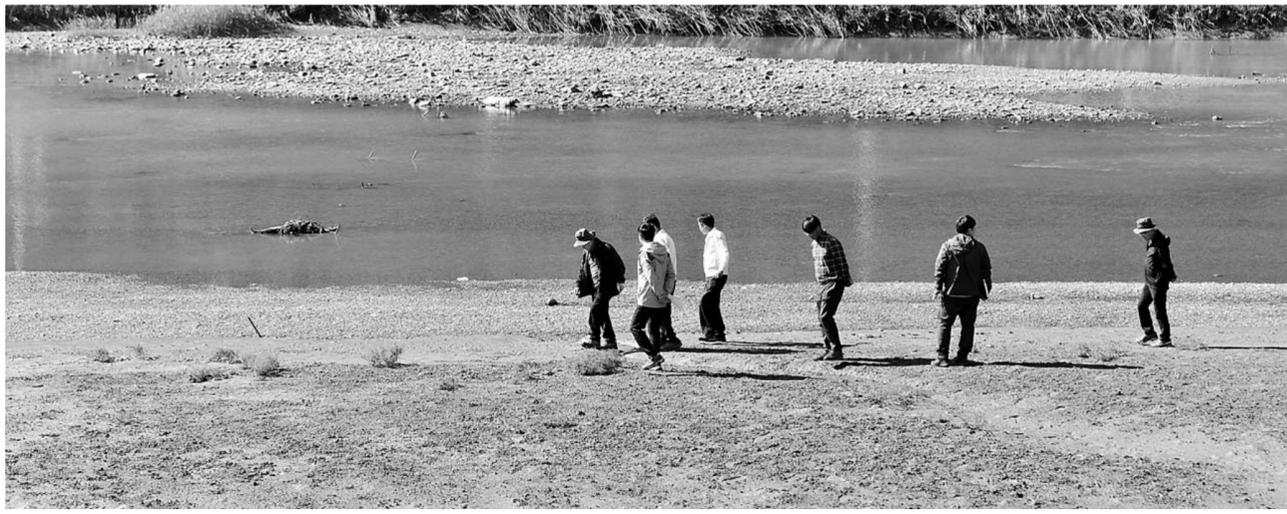
도, 안전한 달걀 공급 위해 위생관리 강화·유통 투명성 확보 농가 살충제 성분 제거작업 지원...김제에 계란유통센터 설치

전북도가 안전한 달걀 공급을 위해 농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달걀 유통 투명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스스로 가축사육 시설별 6개월에 1회 이상 살충제(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케이지와 사료통에 남아있는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축사 내 살충제 성분 제거작업을 위해 농가당 600만원을 지원도 이루어진다.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달걀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및 사육환경 표시를 시행 중이며,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 표시도 시행된다. 생산일자와 함께 사육환경 번호 표시도

병행하며 환경은 총 4가지(①방사 ②평사 ③개선 케이지(0.075㎡/마리) ④기존 케이지(0.05㎡/마리))로 표시된다. 2019년 4월 25일부터 소비자가 달걀을 직접 구매하는 마트 등에 납품하는 달걀은 산란일 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처리가 의무화 된다. 또 달걀 유통 활성화 및 위생·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김제 지역에 2019~2020년 2년간 사업비 60억원(국비18억,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투자해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계란유통센터는 공판장으로, 1일 100만 개 이상의 처리가 가능한 규모로 계열화, 브랜드화 유도하여 영세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북도는 달걀에 대한 안전성 강화(일제검사 및 축사환경개선사업) 및 유통투명성 확보(표시사항 준수유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유통센터 설치) 등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관계자들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아산면과 심원면 일대 인천강 하구습지를 현장답사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 인천강 하구습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새만금환경청, 아산면·심원면 일대 72만2000㎡ 갯벌~하구~운곡습지 잇는 '생태계 연속교' 역할

새만금환경청은 고창군 아산면과 심원면 일대의 인천강 하구습지(면적 72만 2000㎡)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고창 인천강 하구습지는 자연원형이 잘 보존돼 멸종위기생물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연안(갯벌)-하구(인천강)-육상(운곡습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습지 생태축)이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노랑부리백로와 II급인 구렁이, 맹꽁이, 남생이, 검은머리물떼새, 새호리기 등 754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환경부와 새만금환경청은 해당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인천강 하구습지 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하구습지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 현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복원할 계획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인천강 하구습지의 우수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운곡습지와 고창갯벌, 고창 선운사 등과 연계해 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에도 활용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남원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 모집

남원시가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 운영을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급식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도내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도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식품관련 비영리 법인 등이 해당된다.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2019~2021년 12월말까지 3년이며 주요업무로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과 영양·위생 순회관리 및 지도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부실급식을 방지하고, 영양교육자료 개발, 어린이·조

리종사자·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도·교육 등을 실시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접수기관이 1개소인 경우 7일 연장해 재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말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탁 희망자는 남원시청 홈페이지(www.namwon.go.kr) 고시공고 내용을 확인해 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남원시 보건지원과(위생안전담당)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순례 남원시보건소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기관 위탁운영으로 먹거리 만큼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화순 국화향연에 개막 첫날에만 2만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았다. <화순군 제공>

'화순 국화향연' 개막 첫날 2만여명 '복석'

주말 맞아 국화동산·벽화마을 등 가을정취 만끽

'2018 화순 국화향연'이 화순읍 공설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축하공연과 함께 막이 올랐다. 화순 국화향연은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라는 주제로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에서 11월 11일까지 17일간 열린다. 지난 26일 열린 개막식에는 군민과 내외 귀빈 등 7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김태룡 축제추진위원장의 개막선언으로 시작됐으며 축하 공연을 보기 위해 관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다. 개막 축하 공연에는 김연자, 태진아, EXID, 러블리즈, 강진 등 인기 아이돌 및 트롯트, 발라드 등 대중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했다. 화순읍 남산공원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개막 첫날에만 2만여 명이 모여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구충근 화순군수는 환영사에서 "화순 국화향연은 군화(郡花)인 들국화를 소재로 한 대표축제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우리군 브랜드를 높이고 화순군민의 자력을 한데 모으는 군민 참여형 축제로 국화동산과 벽화마을, 전통시장이 하나 되는 낭만 넘치는 화순에서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화순 국화향연은 오색잔란한 국화의 바다가 5.2ha의 남산공원 일원에 펼쳐지며 국화는 물론 억새와 핑크블리, 코키아 등 50여만 주의 꽃들과 경관작물 등이 아름다움을 뽐낸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정읍시, 단풍철 맞아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내달 11일까지 내장산 만남의 광장 일원

정읍시는 단풍철을 맞아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다음달 11일까지 내장산 만남의 광장 일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판매장 운영은 가을철 내장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판매장 운영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접수를 받아 내장산상가변영회, 단풍미인 쇼룸 협의회,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 등 9개의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농특산물만 판매하며

소비자를 위한 소포장 위주 판매, 상거래 질서 확립위한 원산지표시와 가격표를 게시한다. 판매장에서는 단풍미인쌀, 단풍미인한우, 구절초 상품, 장아찌, 사과, 배, 단감 등 80여개 품목에 대한 판매와 시음·시식을 실시한다.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격 미표시 판매와 인근 시군 농산물 반입판매행위를 단속해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